

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환경,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환경호르몬으로부터 함께 안전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담 당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원 010-8934-1279/ 김보연 010-6425-9852

---

### <환경호르몬으로부터 함께 안전한 아시아> 프로젝트 성과 발표 및 아시아 공동 노력 활성화 방안 토론 아시아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 모색

금융산업공익재단(대표이사장 조대엽, 이하 '재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이윤근, 이하 '연구소')는 환경보건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 아시아의 상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험과 자원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크게 생활 속 환경호르몬, 맹독성 농약, 광산과 지역사회 중금속 오염 등의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과 연구소는 그 노력의 출발을 알리는 국제 컨퍼런스를 3월 31일(목)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재단과 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8개국 (네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의 10개 NGO들과 함께 생활 속에 존재하는 환경호르몬을 찾아내고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찾아내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생활 속 환경호르몬에 대한 것으로, 각국의 NGO들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영수증 총 318개 샘플을 채취해서 감열지(영수증)에 함유된 환경호르몬을(BPA 및 BPS를 포함한 비스페놀계 화합물 5가지)을 분석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방구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인 지우개를 선정해 각국으로부터 총 341개의 샘플을 채취했고 그것에 함유된 환경호르몬(DEHP를 포함한 7종의 프탈레이트)을 분석했다.

318개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54.7 %에서 BPA가 검출되었고 37.7 %에서는 BPA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BPS가 검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검출된 수준은 유럽에서 정하고 있는 0.1 % 함유 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었다. 국가별 비교에서 특이한 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BPS의 검출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일본: 77 %, 우리나라: 73 %). 일본은 일찍이 환경호르몬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곳으로써 BPA에 대한 규제가 일찍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영수증에 사용되는 BPA에 대한 위험을 알려 왔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우개의 경우, 분석된 전체 341개의 샘플 중에서 국내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즉 '7종의 프탈레이트 총합 0.1 %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30.5 %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적 비교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그리고 필리핀에서 수거된 제품들 중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중이 더욱 높아 40 %를 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별도조사, 59개 제품 분석) 단 하나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최근에 강화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성과라고 평가된다.

BPA 및 프탈레이트에 대한 각국의 제도를 비교한 결과,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BPA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유아 제품(젖병 등)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포장재에서의 용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영수증에서의 규제는 아직 어느 나라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프탈레이트의 경우 주로 어린이용 장난감이나 입에 넣을 수 있는 어린이 제품들(노리개 젓꼭지 등)에 적용되는 함량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었다.

반면 유럽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BPA를 감열지에 사용할 경우, 0.02 % 함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2020년 6월부터 BPS에 대한 규제를 BPA와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BPA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는 BPS 역시 BPA와 유사한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 역시, 2020년 1월부터 4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해 그것이 제품 내에 가소제로 사용될 경우 총량 대비 0.1 % 함량을 넘은 제품은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시아 8개국과 함께 진행된 이번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에서는 일반 소비자들과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물질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제한하는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본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별로는 소비자 제품 및 어린이 제품들에서 환경호르몬을 규제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사업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

가 필요하다. 특히, 유럽에서의 프탈레이트 규제처럼 연령에 따른 사용 제품의 구분 없이 프탈레이트가 가소제로 사용되는 제품으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21년에 추진된 아시아 8개국 간의 공동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각국의 시민단체, 관련 당국,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컨퍼런스가 준비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시민들이 스스로 아시아의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3월 28일

### 금융산업공익재단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18년 10월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으로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 참고 자료

### 1. 컨퍼런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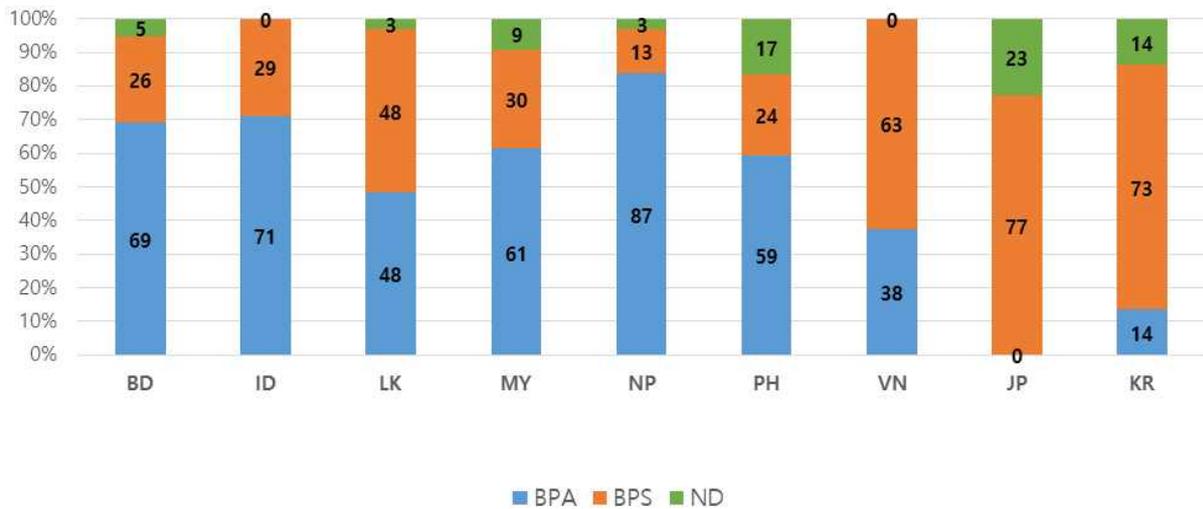
별도 첨부 초대장 참조

### 2. 공동 프로젝트 참여 NGO 리스트

〈표 2〉 공동 프로젝트 참여 NGO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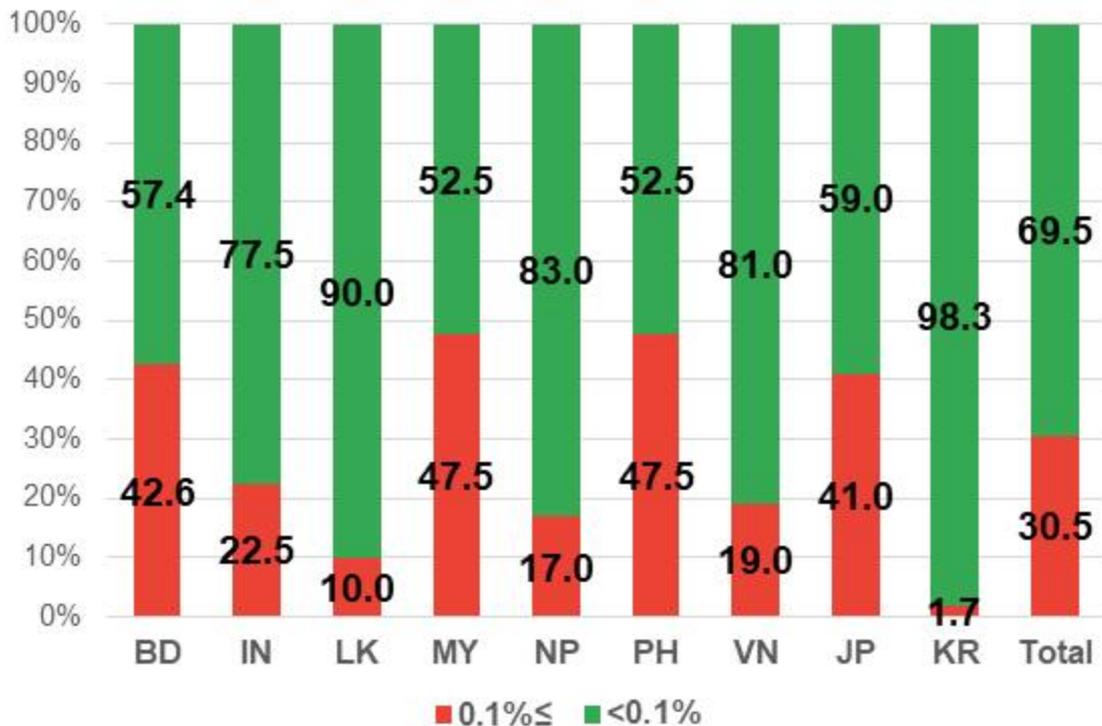
국가	NGO 명칭
네팔	Center for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CEPHED)
말레이시아	Consumers & Association of Penang (CAP)
방글라데시	Environment and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 (ESDO)
베트남	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스리랑카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인도네시아	GITA PERTIWI
	ECOTON (Ecological Observation and Wetlands Conservation)
일본	T-Watch (Toxic Watch Network) Japan
필리핀	Interfacing Development Interventions for Sustainability (IDIS), Inc.
	Eco Waste Coalition (EWC)

### 2. 영수증에서의 BPA/BPS 분석결과(국가별 비교, %)



※ BD(방글라데시), ID(인도네시아), LK(스리랑카), MY(말레이시아), NP(네팔), PH(필리핀), VN(베트남), JP(일본), KR(한국)

### 3. 지우개에서의 프탈레이트 분석결과(국가별 비교, %)



※ BD(방글라데시), ID(인도네시아), LK(스리랑카), MY(말레이시아), NP(네팔), PH(필리핀), VN(베트남), JP(일본), KR(한국)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7종 프탈레이트 총 함량 0.1 %